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물건을 구매한 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수증 보관을 당부하려면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럴 땐 "Keep the receipt!" 이라고 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스티커를 붙여라!

Put the sticker!

2.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와!

Go cash this check!

3. 가서 가격 좀 알아 와!

Go check the price!

4. 종이를 깔아라!

Lay the paper!

5. 영수증 보관해라!

Keep the receipt!

6. 안으로 들어와!

Come on in!

7. 가서 내 재킷을 가져 와!

Go bring my jacket!

8. 잔디에 물을 줘라!

Water the grass!

9. 가는 길에 여기 들러라!

Drop by here on your way!

10. 이 망치를 사용해라!

Use this hammer!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ML 2020시즌, 커미셔너 직권 개막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다음 달 23일(현지 시간) 또는 24일 팀당 60경기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23일 'ESPN'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이날 최종 협의를 통해 2020시즌 개막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개막이 미뤄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7월 1일부터 캠프를 열고 23일 리그를 개막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치열한 안전이었던 경기 수는 팀 당 60경기로 정해졌다.

리그는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의 구분을 없애고 동부 10팀, 중부 10팀, 서부 10팀으로 나누며, 각 팀은 기존의 같은 지구 팀들과 10경기씩, 총 40경기씩 치른다. 나머지 20경기는 같은 리그의 다른 팀들과 치른다. 이 가운데 6경기는 각 구단의 기존 인터리그 라이벌팀들과 치른다.



▲ 2020시즌 메이저리그가 7월 말 커미셔너 직권으로 개막한다. 사진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왼쪽)와 류현진. 그래픽=타운뉴스

리그 사무국과 노조는 그동안 연봉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구단별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사무국과 구단주 측은 이번 시즌 경기 수를 줄이고 선수들의 연봉을 깎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연봉 삭감 비율과 경기 수 등에 있어 양측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사무국과 노조의 연봉협상은 지난 주말 노조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 직

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지며 리그가 열리게 됐다.

뒤늦게 개막하는 2020 메이저리그는 오는 9월27일까지 정규시즌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시즌 동안 선수들은 기존 연봉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보장받는다. 또 포스트시즌은 당초 확장이 예상됐으나 기존대로 10개 팀이 올라가며 리그 전체가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한다.

하루 홀인원 3개 진기록 ... 2개는 연달아 나와

호주의 한 골프장에서 하루에 만 홀인원 3개와 앨버트로스 1개가 쏟아져 화제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전날 "호주 빅토리아주의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지난 20일 하루에 홀인원 3개와 앨버트로스 1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홀인원 3개 중 2개는 같은 조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는 올해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빅 오픈이 열린 골프장이다.

이날 같은 조에서 경기한 게리 앤더슨과 피터 머틀리치는 파3 12번 홀에서 연속 홀인원을 기록했고, 다른 그룹에 속한 트레이비스 모트도 '홀인원 파티'에 동참



▲ 연속 홀인원을 기록한 게리 앤더슨(왼쪽)과 피터 머틀리치. 사진=비치 골프 링크스 페이스북

했다. 미국 국립 홀인원 기록실에 따르면 4명이 한 조를 이룬 그룹에서 같은 홀에서 2명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무려 1,700만분의 1에 이른다. 또 미국 기준으로 코스당 1년에 평균 10~15회 홀인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날 이 골프장에서는 하루에 3개나 쏟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토비 워커란 사람은 파5인 4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홀아웃하며 한 홀에서 3타를 줄이는 앨버트로스를 달성했다. 앨버트로스는 홀인원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립 홀인원 기록실은 일반적인 골퍼가 홀인원 할 확률을 1만 2,000분의 1로 분석하고 있고, 미국프로골프협회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앨버트로스는 약 600만분의 1 정도로 어려운 확률이다.

복사기 무료 1st month FREE

복사기 렌탈! 판매! 서비스!

FBM RENT PROGRAM

- FREE Copier, Finisher
- FREE Toner, Part, Labor
- FREE Network, Print, Scan
- Flexible Program ▪ Fast Service

B&W Rent \$75~
Color Rent \$100~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800)582-3321
E-mail : fbm9044@hotmail.com / www.fbmcopiers.com 562)802-9044